宗說

‘권기權紀 천백년사’ 발간은 안동권문의 숙원사업

사시(四始)를 넘어 오시(五始)로 가자

우리 권문의 사시(四始)에 대해 작년 5월 1일자 본지 제2면에 상세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권문이 처음 시작하였다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족보를 최초로 만들었으며, 연세 높은 문신(文臣)이 임금과 함께 들어가는 기로소(耆老所)에 처음으로 입소했으며, 권위와 명망이 높은 문형(文衡)에 처음으로 올랐으며, 유망한 문관(文官)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는 호당(湖堂)에 처음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이 사시를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사시에다 현재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權紀1100年의 역사책’을 더하여 오시(五始)가 되게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조 태사공께서 서기 930년에 득성하신 뒤 반천 년을 지나 14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 가 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1604년, 1654년, 1701년, 1734년, 1794년, 1907년, 1961년, 2004년에 대동보(大同譜)가 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동보 외에도 각 문중별로 파보(派譜)가 간행되었으며 지금도 인터넷 족보와 함께 제작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시조(始祖)에서부터 현재 자손까지의 종적(縱的)인 세계(世系)와 족친 상호간의 횡적(橫的)인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종중을 단합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종중의 전체적인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1909년의 《태사권공실기(太師權公實記)》 발간을 시작으로 《세덕지(世德誌)》, 《문헌세덕편(文獻世德篇)》, 《능동지(陵洞誌)》, 《문헌록(文獻錄)》, 《능동실기(陵洞實記)》, 《모원록(慕源錄)》, 《전고(典故)》,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태사공실기(太師公實記)》,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등의 실기류(實記類)들이 연달아 간행되었습니다.

초기의 실기들은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태사공의 득성 유래, 능동의 묘소·재사(齋舍)·신도비(神道碑), 안동의 태사묘(太師廟), 경주의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모으고 이어서 현달(顯達)한 후손을 선정하여 관직과 사적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원록(慕源錄)》에서부터는 한문 자료를 국역하고 현대 방식으로 편집하였으며 특히 《전고(典故)》에서는 저명한 후계(後系)를 세대별로 파별로 그리고 23개 분야로 자세하게 분류하여 실었습니다.

《영가언행록》은 태사공에서부터 1910년까지의 현달한 후계(後系) 1,816인의 행장·비문 등을 모아 국역하고 원문과 함께 파별·세대별로 편집하였습니다. 《태사공실기》도 자료를 국역하여 원문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먼저 제1부 「총서(總敍)」에서 태사공의 선계(先系)·득성(得姓) 유래·득성 이후 설화 그리고 태사묘(太師廟)·능동재사·운곡서원의 연혁(沿革)을 서술하고, 제2부 「실기(實記)」에서는 제1부와 관련한 자료를 국역문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제3부는 「후계(後系)」로서 10세 15대 파조까지에 대한 자료가 국역문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운곡서원지》는 운곡서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모아 국역하고 원문과 함께 편집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편찬할 1100년 역사책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사공 재세시(在世時)에 종덕수훈(種德樹勳)하여 석성수작(錫姓受爵)하신 사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서세후(逝世後)의 묘도(墓道)와 제향에 관한 것으로서 묘소·신도비·재사·묘우(廟宇)·서원의 연혁일 것이며, 세 번째는 후계(後系)일 것입니다.

1100년 역사의 전체 기간 중에서 1910년도까지의 980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수집 국역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 편집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20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여 덧붙이면 우리 권문 1100년 역사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인쇄 출판은 물론 전자책 또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대종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할 것입니다.

1100년사 발간을 통해 숭조목족(崇祖睦族) 정신이 진작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권문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더해져 사시(四始)가 오시(五始)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1100년사가 오시(五始)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100만 족친이 참여하는 가운데 15개 각 파별로 편집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역사적 사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거치는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9)

최근 한국의 서울 강남의 3(5)구 아파트 값(전세값 포함)이 몇 개월 사이에 폭등하여 여러 채를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언론의 집중조명과 질타(?) 받고, 국민들의 시비분분하고 의원 본인의 구차한 변명이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러트리게 만들었다.

사실 부동산 가격(집값, 전세, 땅값, 건물가, 가게임대료 등)의 폭등은 노태우 정부 때 ‘88올림픽’ 이후 3~4년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에 서너 배(3~400%)가 올랐고, 다주택 보유는 유신정권 시대 국회의장이 손자까지 1가구 70여 채 아파트를 ㅅ여대 독신 여교수가 40여 채를 보유한 것이 쇼킹한 뉴스 보도였다. 그런데 30년간의 ‘군사정부’를 지나 이른바 ‘문민·국민·참여·이명박근혜·촛불혁명’ 정부 20년간, 주택업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된 뉴스는 아니었지만 1인(가구·법인?)이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 보유에서 특히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를 평균 약 3.5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직업군은 대개 고급공무원과 대기업임원급 간부 등이 다수라는 것이었다.

작년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어목혼주(魚目混珠)’를 선정한 바 있다. ‘(썩은)생선 눈알과 진주(구슬)을 혼동하거나 섞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뜻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뜻이다. 이른바 ‘사’자 돌림의 판사(判事)·검사(檢事)·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 그리고 박사(博士)들의 한자 뜻은 각각 간단하게 일‘사(事)’·스승‘사(師)’·선비‘사(士)’로 새긴다. 작년과 올해 2월 현재까지 행정부 검찰과 사법부의 판사의 개혁과 의사와 전공의·의대생의 항의시위(시험거부 등)와 의사협회의 방역과 백신주사를 앞둔 의료행위 거부 예고로 국회의원들의 입법(큰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무거운 형이 확증되면 면허증 취소)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과 법치, 생명과 보건에 대한 ‘사’자 그들의 올바르고 공정한 전문가적 권한과 의무를 방기나 직무유기로써 협박하는 철학적 의식수준과 실천의 함량 미달이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 세상에 청렴이나 순결, 예의염치, 공정공평, 대동세상, 인권과 법치, 진실과 반독재 민주운동과 해방통일·민중운동 등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 물정 모르거나 우활(迂闊)하고 웃기는 사람들의 잠꼬대로 여기고, 너도 나도 “돈!, 땅! 아파트!, 출세! 승진!, 부자!, 경제!”를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한 때 “부자되세요!”가 인사말로 유행하던 세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개인과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상)가 1:99 빈부격차의 악순환 정치·사회·문화의 혼란과 경제적 공황(고 리영희〈1929~2010〉 선생의 ‘진실’과 언론개혁 / 고 백기완〈1933~2021〉 선생의 ‘반독재 민주운동과 해방통일·민중·농민운동’ / “예기”‘예운’의 ‘천하위공(天下爲公)과 대동세상’ 등) 상태가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의 생태계 파괴와 재난 및 각종 질병의 팬데믹 현상은 계속될지도 모른다.

한편 이명박 정권 시대인 2009년도에 ㅎ대 교수 김OO(동양·한국철학 전공)는 진보적 성격의 철학회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의 기관지(“시대와 철학”20권 2〈2009. 여름호〉)의 ‘시대평론’ [바보 노무현과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임 중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같은 잘못도 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은 사람. 상위 5%로보다는 95%를 위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노르웨이 국립 ㅇ대학 박OO(한국학 전공)와 견해가 달랐다.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동안 청와대 물건 구입비가 14억 원을 넘어선 것’과는 달리 노무현은 ‘집권 5년 동안 청와대 물품비로 지출한 돈이 5천만원뿐인 소탈하고 서민적인 사람…’이라고 포폄이 혼합된 의견을 보이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OO와 김OO의 비판은 공통적이었다.

당시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반헌법·반인권적 법률로 소문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였고,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 때(1989년) 여소야대 국회의 김대중의 평민당이 제1야당인 시절에 국회 문공위원장 정OO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교원;교사·교수 인사권이 교·학·총장에서 재단이사장으로)은 통과되었다. 다시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박OO과 나OO 등)과 일부 극우집단(기독교 중심 종교재단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반대시위(50여일 간 시청앞 광장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미국 성조기도 함께 등장〉’에 부딪치자 누더기 법이 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악은 꼭 집고 반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적폐청산’에서 교육·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유OO장관이 취임 초에 사립유치원(세계 최고율인 8~90%)의 사립대학(약 85%)의 국·공립화와 재단비리 척결과 감사 등에 배전을 노력을 촉구하며, 각 학교의 ‘스승과 학생(제자) ; 사제’들도 ‘줄탁동시(啐啄同時)와 어목혼주’의 뜻과 ‘사’자의 의미에서, 약 40년간 학교 선생으로 정년퇴임을 며칠 앞두고 남 탓보다 나 자신의 반성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다음호에 계속)

권기 천백년사 역사책 발간 사업 준비회의 개최

“권기 천백년사 발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3월 22일(월)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해옥 대종회 회장을 비롯해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 권해조 종보편집위원, 권태현 권기 천백년사 편집위원,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모두 발언으로 코로나 상황이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권웅렬 고문이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사업을 제안해서 추진 준비 중이다. 여러분께서 잘 의논해서 성화보처럼 역사적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사업의 방향 등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안동권씨 천백년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역사책 발간 사업의 추진배경과 그간의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태현 편집위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집 유고(遺稿) 등의 사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에 문적이 있더라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지역종친회를 통해 마을 단위로 탐문하여 수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은 우선 책명이 “권기 천백년사” 보다는 “안동권씨 천백년사”가 좋을 것 같다. 책 내용은 먼저 시조 태사공의 득성, 수훈, 수작 등을 배치하고 묘소연혁, 능동재사 연혁, 태사묘 연혁, 운곡서원 연혁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족보 간행 연혁, 종보 연혁 등을 포함하여 대종회 연혁을 서술했으면 한다. 후손들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현대도 그 대상 시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족친들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단양식에 호, 관직명, 공적 등의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동명이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권해조 편집위원은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하려면 누군가는 상주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은 먼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문집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안동권씨들 끼리만 자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다른 성씨들에게도 읽혀지는 책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 셋째는 시조 선대 계보를 정리하는 것이다. 넷째는 우리 안동권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부침이 있다. 시대별 상황에 따라 어느 시대는 잘 나갔고 또 어느 시대는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기록해야 후손들이 잘 나가는 사람도 삐긋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등록 기준을 관직으로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 여섯째 집필자를 안동권씨로만 한정할 것인가. 편집 목차는 우리가 정하고 목차별로 누구에게 집필을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옥 회장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자칫 잘못하면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보다 치밀한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에 파종회장단 회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문헌(文獻)을 찾습니다

귀중한 문헌(文獻)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문헌 중 한 문헌이라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혜공(景惠公, 부정공파 16世, 휘:專, 단종 외조) 친필 가첩

2. 안동권씨 소원록遡源錄(1956년, 권계환 편저)

○ 연락처 : 千百年史편집위원회

－ 위원 권태현(權兌鉉) 010~9517~1221

○ 주　소 : 우) 5161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145